

12 만생 진홍수

#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 진홍수 전통에 대한 개성적 재해석 담겨

17세기 중국, 명말청초의 혼란기에 민국의 유민으로 기인적인 삶을 살면서도 독보적인 예술 스타일을 통해 후대 화가들에게 회화적 영감을 선사한 걸출한 화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홍수(陳洪綬, 1599-1652). 같은 시기, 차 문화에 있어서도 오래도록 기억될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차를 좋아해서 자사호(紫沙壺)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시문을 서각하기도 했는데 훗날 이렇게 만들어진 다호는 그의 호를 따서 '만생호'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았다.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다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두 인물이 사실 동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만생호의 '만생(曼生)'은 바로 진홍수의 호인 것이다. 그림뿐만 아니라 차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진홍수였기에 그의 예술세계에는 문인적인 전통성과 새로운 예술적 요소들이 아우러진 복합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만생호(曼生壺). 중국 당나라 예술가 소장(위), 진홍수(陳洪綬), '정금품명도(淸琴品茗圖)', 견본실색, 76x54cm, 개인소장(아래).

오늘 소개하는 진홍수의 그림인 '정금품명도(淸琴品茗圖)'는 두 인물이 악기 연주와 차를 마시며 품평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문인의 차회는 그림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진홍수의 표현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우선 그림 안에는 동진시대의 화가 고개지에 의해 성립된 고식의 표현방식이 눈에 띈다. 인물과 주변 경물을 제외한 모든 배경은 생략했으며 인물들의 의복 표현도 옛 방식을 따라 평면적으로 그려져 신채 골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림이 단지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참신하면서도 희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인물들의 얼굴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옷 주름의 표현보다 더욱 섬세한 붓질로 그려낸 얼굴 표정은 마치 특정인물의 초상화를 그린 듯 생생하다. 화면을 등지고 주인공과 마주앉은 인물도 정면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표정에서는 깊은 의중이 읽힌다. 또한 각이진 바위 질감에 맞추어 옷 주름의 곡선 표현을 조금씩 굴절시킨 부분은 배경과 인물이 한데 어우러져 개성적 얼굴 표현을 한층 돋보이도록 만들었다. 다란을 들고 있는 인물들의 주변에는 군데군데 찢어진 파초 잎과 비단에 싸인 채석상(石床) 위에 놓인 거문고가 있어 소박한 듯 운치

있는 이들의 만남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오른쪽에 만개한 연꽃이 이 모든 풍경을 투명한 흰빛으로 장식하고 있다.

과거 한쪽이 응성했던 시절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기법적인 복고주의를 넘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한결을 나아가 진홍수가 표현한 전통에 대한 개성적인 재해석은 현재와 과거가 같은 공간에 융합되면서 기이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전체적으로는 품다의 정경이 지닌 품위를 잃지 않고 있어, 그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개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물표현뿐 아니라 다구의 묘사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인물의 오른쪽에는 청색과 붉은색으로 채색된 기괴한 모양의 바위가 마치 고대 청록산수화에 등장하는 암산처럼 신비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텅빈이 놓여있는 화로와 함께 당시 사용하던 다호가 섬세하게 묘사돼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다호가 신비한 느낌의 괴석과 한 자리에 어우러진 모습이다. 다호가 놓인 공간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이 드문 점에서 보아도 진홍수의 다호에 대한 애정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정성껏 그려진 다호는 당시 상류층이 애호하던 자사호이다. 자사호는 본래의 차색과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특성 때문에 청대에 유행한 산차와 보이차를 가장 잘 담아내는 다호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진홍수가 직접 디자인하고 명문을 조각해 넣은 만생호는 공예품 안에 문학적인 미감을 보탠 것으로 당시 자사호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차 문화가 종합 예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다의 발전뿐만 아니라 진홍수와 같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물들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 진홍수는 그의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실의 기법을 융합시키고 실용과 순수예술을 접목시켰다. '호(壺)'는 글자를 통해 귀함이 있고, 글자는 호를 통해 전달된다는 말처럼 이를 통해 각각의 문화는 보다 종합적인 감상의 차원으로 격상됐던 것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9 석주 스님 가시던 날



만장이 일어선다. 슬픔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중은 울고, 마지막이 아니라면서 법구는 길을 나선다. 2004년 11월 18일, 석주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가 부산 범어사에서 있었다. 영정은 낙엽 위를 걷고 있었고, 깊어가던 산문의 풍경은 잠시 시절을 놓은 듯했다. 불이 들어간다. 스님은 '나고 죽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상사라 했지만, 불길 끝에 매달린 시선들은 스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스님은 부처님 곁으로 가셨고, 도자기를 끌어안고 글씨를 쓰던 스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스님의 마지막 법문도 끝이 나고, 대중은 한 줌 연기 속에서 스님의 마지막 글씨 한 점씩을 받아들이고 겨우 돌아갔다.

## 옛 판화의 세계

### 무업 스님이 말끝에 깨닫다 무업돈오(無業頓悟)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무업 선사가 스승인 대적 선사(마조도입)와의 법가람을 통해 '마음이 부처'라는 말씀의 뜻을 환하게 밝혀 깨우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무업(無業)은 산서성 서남군의 분주지역에서 널리 선종을 드날린 분주무업(759-820)이다. 속성은 두찌로 신장이 6척을 넘었고 말투는 범종처럼 위엄이 넘치고 장중했다. 경전에 해박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등에 뛰어났으며 특히 <열반경>을 오랫동안 강의했다. 불경의 진리에 통달했다고 해 대당 국사(大達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업 스님이 대적 선사에게 정례하고 말했다. '오직 삼승의 글과 학문은 대략 그 뜻을 궁구했습니다만 일찍이 들었던 선사께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적 선사가 말했다.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그것도 별다른 물건은 없다. 환하게 밝지 않을 때는 곧 헛갈리고 있는 것이며, 만약 환하게 밝아지면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헛갈리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다. 도는 중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중생 이외에

따로 다시 부처가 있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손이 주먹이 되는 것과 같다. 완전한 주먹 그것이 곧 손이다.' 무업 스님은 이 말이 말씀의 뜻을 환하게 밝혀 깨우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무업(無業)은 산서성 서남군의 분주지역에서 널리 선종을 드날린 분주무업(759-820)이다. 속성은 두찌로 신장이 6척을 넘었고 말투는 범종처럼 위엄이 넘치고 장중했다. 경전에 해박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화엄경> 등에 뛰어났으며 특히 <열반경>을 오랫동안 강의했다. 불경의 진리에 통달했다고 해 대당 국사(大達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업 스님이 대적 선사에게 정례하고 말했다. '오직 삼승의 글과 학문은 대략 그 뜻을 궁구했습니다만 일찍이 들었던 선사께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적 선사가 말했다. '아직 환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그것도 별다른 물건은 없다. 환하게 밝지 않을 때는 곧 헛갈리고 있는 것이며, 만약 환하게 밝아지면 곧 그것이 깨달음이다. 헛갈리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다. 도는 중생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중생 이외에

## 시가 있는 도량

### 운주사에서

남행길에 에둘러 들른  
운주사, 千佛들  
한참을 들여다보니

아비 얼굴  
아이 얼굴  
내 얼굴

내가 건너온 전생이  
저리 쓸쓸하고 무성계  
천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 어디에서  
천년을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니  
열두 근의 그늘에 빠 마르는 소리들

-김병호, <시와 시학> 10월호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무업돈오(無業頓悟)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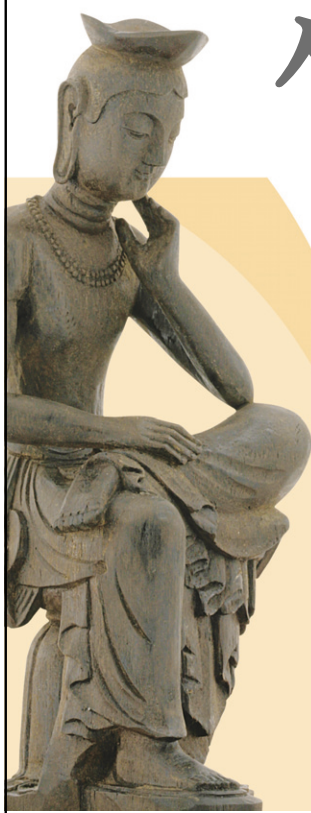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 사찰 화재보험 안내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항·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양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0-7344-1881